

청소년의 행복성장 원동력, 청소년 활동정책 발전 방안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2016. 12. 20.(화) 14:00
- 장 소: 천안시 세종웨딩홀
- 주 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진행 안내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6. 12. 20.(화) 14:00 ~ 16:00
- 장 소: 천안시 세종웨딩홀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청소년의 행복성장 원동력, 청소년 활동정책 발전 방안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4:00	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정책지원팀장 (입법정책담당관실)
14:05	14:1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윤지상 의원
＜ 토 론 회 ＞ ※좌장: 윤지상 의원				
14:10	14:30	20'	주 제 발 표 ▶ 성은모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6 충남청소년활동 실태 및 연구조사 결과 발표	
14:30	15:30	60'	지 정 토 론 ▶ 한도희 사무총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최창욱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채충민 위원 /청소년특별회의의 충청남도회의 ▶ 박영의 센터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토론자 전체 (각 15분)
15:30	15:45	15'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15:45	15:55	10'	청중 토론(질의 답변)	참여자 전체
15:55	16:00	5'	정 리 및 폐 회	좌 장

목 차

■ 주제발표

- ☞ 2016 충남청소년활동 실태 및 연구조사 결과 발표 3
성은모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정토론

- ☞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향 35
한도희 사무총장(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 충남 청소년 활동 정책의 방향과 과제 41
최창욱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활동 45
채충민 위원(청소년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
- ☞ 그래도... 청소년이 희망이다. 49
박영의 센터장(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주제발표

2016 충남청소년활동 실태 및 연구조사 결과 발표

성 은 모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충청남도 의정토론회

2016 충남청소년활동 실태 및 연구조사 결과 발표



2016.12.20

성은모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 차

1.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4. 제언: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및 역량 향상 발전방안

1.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배경

1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배경

청소년 활동의 중요성 증가

- ✓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
- ✓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필요
 - 높은 성취수준, 낮은 행복감
 - OECD 청소년 자살률 1위: 성적
- ✓ 청소년 활동을 통해 급변화는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 및 촉진 중요

1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배경

청소년 활동을 위한 충남 청소년진흥원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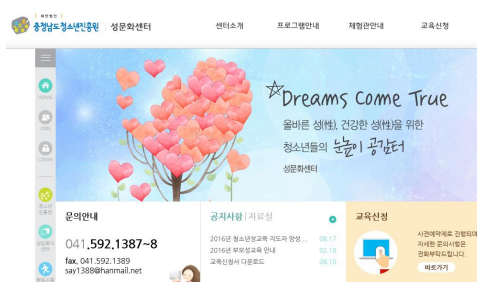
- ✓ 청소년 활동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청소년 상담, 성교육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 ✓ 충남지역 청소년 활동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 ✓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1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배경

청소년 활동을 위한 충남 청소년진흥원의 지원

- ✓ 청소년 활동 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청소년 상담, 성교육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 ✓ 충남지역 청소년 활동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 ✓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1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배경

청소년 활동의 현황과 요구 파악 필요

- ✓ 청소년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는 수준은?
- ✓ 청소년 활동 참여에 따른 효과성은?
- ✓ 청소년이 원하는 청소년 활동은?
- ✓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필요성 강조
 - 청소년 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 청소년 활동 참여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 **변화 추이를 분석**
 - 청소년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청소년 활동정책 개발**

1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배경

청소년 활동 실태 분석에 대한 제한점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각 시도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조사
 - 조사주제가 상이하고 지역간 자료가 공유가 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함
- ✓ 전국단위 표준화된 청소년 활동실태 및 요구조사 지표 부재
- ✓ 청소년 활동에 대한 효과성 측정검사도구의 부재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음
 - 개별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짐

1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배경

근거중심의 청소년 활동 정책개발 필요

- ✓ 지금까지의 제한점 극복이 가능해짐
- ✓ 청소년 활동 실태 분석을 위한 청소년 활동 실태분석도구 개발
- ✓ 청소년 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검사도구 개발

영역	활동영역별 개념
건강증진활동	거인과 집단이 안녕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 건강관련 지식, 생활습관, 의식, 태도를 습득하는 활동
과학정보활동	과학, 정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과학 및 정보활동능력과 창의성 증진 활동
교류활동	인적, 물적, 문화적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간, 남북간, 국가간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활동
모험탐사활동	환경감수성, 진취성, 도전의식 등을 함양하기 위해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문화예술활동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자원봉사활동	이타성, 공동체 의식 등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나 타인을 돕는 활동
진로활동	자기 이해, 진로결정, 직업선택 역량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진로 및 직업 관련 활동
참여활동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능동적으로 각종 조직이나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활동

청소년 활동 (문성호 외, 2015)



청소년 역량 (성은모 외, 2013~2016)

1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배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전국단위에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실태와 요구 파악이 가능
 - 장기적인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예측가능
- ✓ 전국단위에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측정가능
- ✓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역량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 근거중심의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정책개발에 기여

2. 연구내용 및 방법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 조사 I: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

- ✓ 청소년활동 8대 영역별('15년 개발) 43개 세부활동 실태
 - 참여경험, 참여횟수, 만족도
- ✓ 청소년 활동(사업)에 대한 인지도
- ✓ 청소년 수련시설(센터 포함) 인지 및 이용정도
- ✓ 청소년 활동 요구 및 수요 사항
 - 참여동기, 활동참여 후 도움이 되는 정도, 활동정보 획득경로,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 등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 조사 2: 청소년 역량 수준 측정

-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중 3개 영역의 역량군에서 4개 하위역량 중심으로 측정
 -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역량 측정
 -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역량, 협동역량 측정
 - 사회참여역량: 개인시민성 역량 측정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 조사 3: 충남 청소년의 문제해결력 및 행복감 측정 (자체변인 설계)

- ✓ 충남 청소년의 문제해결력 측정
- ✓ 충남 청소년의 행복감 측정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

○ 연구대상: 충청남도 2,216명 중고등학생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666	683	1,349
	49.4%	50.6%	100.0%
여	477	390	867
	55.0%	45.0%	100.0%
계	1,143	1,073	2,216
	51.6%	48.4%	100.0%

2 연구내용 및 방법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계룡	17	18	35	12	16	28	63
공주	23	27	50	87	4	91	141
금산	18	12	30	0	24	24	54
논산	69	0	0	41	21	62	131
당진	44	46	90	54	40	94	184
보령	60	0	60	36	21	57	117
부여	13	14	27	34	13	47	74
서산	45	73	118	59	28	87	205
서천	19	0	19	27	0	27	46
아산	86	79	165	94	39	133	298
예산	6	20	26	11	24	35	61
천안	207	156	363	179	98	277	640
청양	16	13	29	6	26	32	61
태안	25	0	25	14	9	23	48
홍성	18	19	37	29	27	56	93
계	666	477	1,143	683	390	1,073	2,216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

○ 연구도구 I : 청소년 활동 실태분석(114문항)

구분	조사 내용	문항수	구분	조사 내용	문항수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건강증진활동	18	청소년활동 결정요인	정보획득 경로	1
	세부활동별 과학정보활동	15		참여 동기	1
	경험여부(a) 교류활동	9		참여에 영향을 준 사람	1
	· 모험탐사활동	12		참여결정 요인	1
	· 횡수(b) 문화예술활동	12		참여 장애요인	1
	· 자원봉사활동	12		참여가 도움이 된 점	1
	만족도(c) 진로활동	12		희망 활동장소	1
	· 참여활동	12		희망 활동시간	1
	그밖에 참여한 활동	1		청소년활동 사업에 대한 인지	1
	· 소계	103		청소년활동 시설에 대한 인지	1
청소년활동 참여 요구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	1		청소년활동 시설 이용경험	1
	· 소계	1		· 소계	10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

○ 연구도구 II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40문항)

구분	조사 내용	문항수
청소년 역량	관계형성 의사소통	6
	· 공감 및 배려	4
	협동 팔로워십	3
	· 갈등문제해결	5
	개인시민성 권리 및 책임의식	4
	· 자기탐색	4
	· 직업탐색	4
	· 진로설계	4
	· 직업가치관	4
	· 진로준비	3
	· 소계	40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

○ 연구도구 Ⅲ : 충남 청소년 주요특성(22문항) 및 일반사항(5문항)

구분	조사 내용	문항수
충남 청소년 주요특성	문제해결력	15
	행복감	7
	소계	22
일반적 사항	성별	1
	학교급	1
	학교유형	1
	지역	1
	학업성적	1
	소계	5

2 연구내용 및 방법

자료분석

- ✓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기술통계
- ✓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 성별, 교급, 성적수준, 지역수준
 - t검증, ANOVA 검증
- ✓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영향관계분석
 - 회귀분석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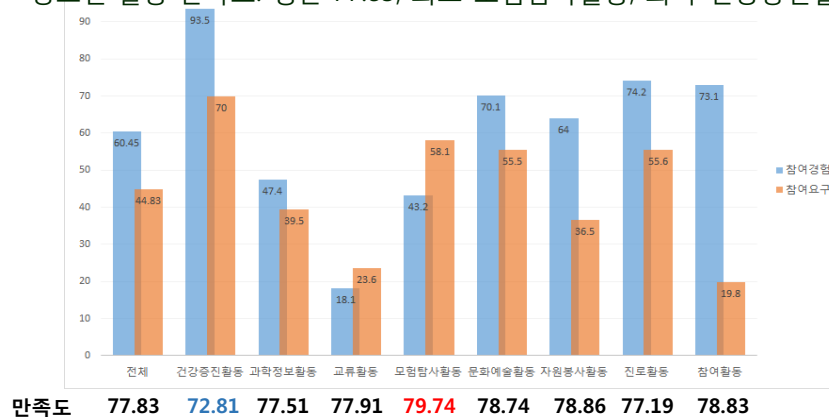
3. 2016 충남 청소년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1)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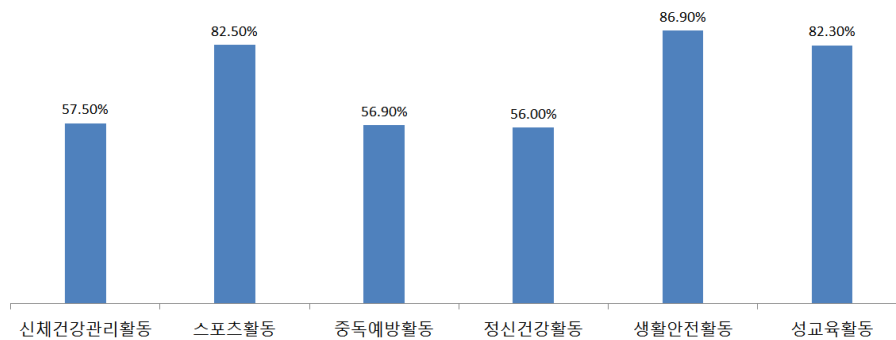
- ✓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97.4% 1개 이상, 최고-건강증진활동, 최저-교류활동
- ✓ 청소년활동 참여요구: 최고-건강증진활동, 최저-참여활동
- ✓ 청소년 활동 만족도: 평균 77.83, 최고-모험탐사활동, 최저-건강증진활동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1)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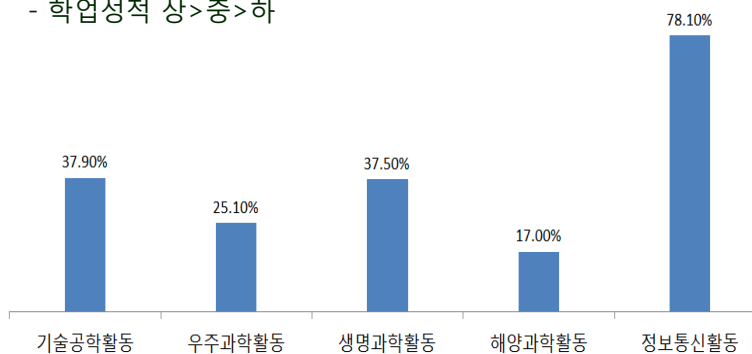
- ✓ 건강증진활동 참여실태
- 남>여, 중학교>고등학교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1)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분석

- ✓ 과학정보활동 참여실태
- 학업성적 상>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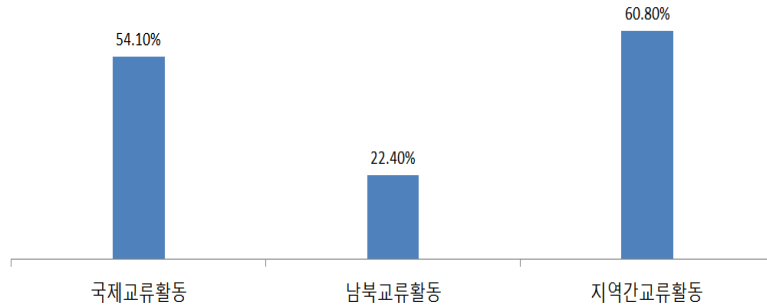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1)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분석

✓ 교류활동 참여실태

- 남<여, 학업성적 상>중=하, 지역(계룡, 예산>부여, 논산, 천안> 청양,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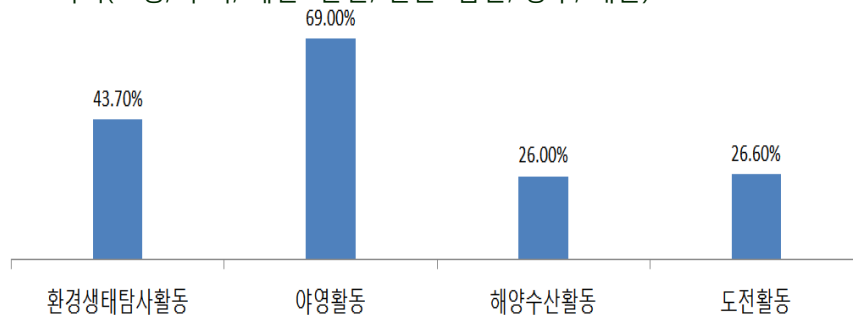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1)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분석

✓ 모험탐사활동 참여실태

- 남<여,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성적 상=중>하,
- 지역(보령, 부여, 예산>논산, 천안>금산, 공주,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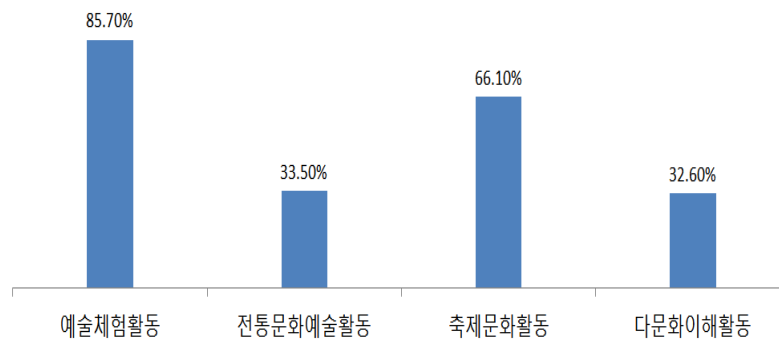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1)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분석

✓ 문화예술활동 참여실태

- 남<여,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성적 상=중>하,
- 지역(예산, 서천, 계룡, 금산, 청양>공주, 아산, 천안>서산, 당진,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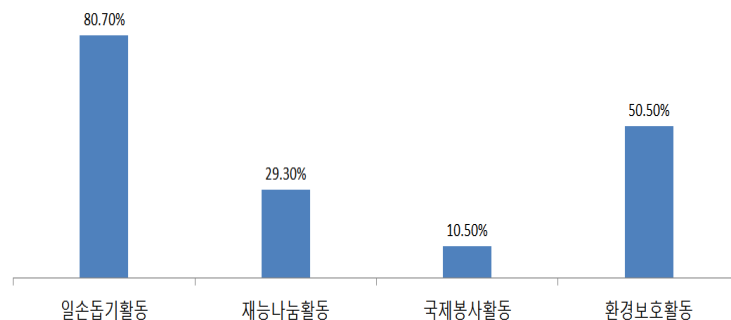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1)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분석

✓ 자원봉사활동 참여실태

- 남<여,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성적 상=중>하,
- 지역(홍성, 예산, 계룡>부여, 공주, 당진> 금산, 보령,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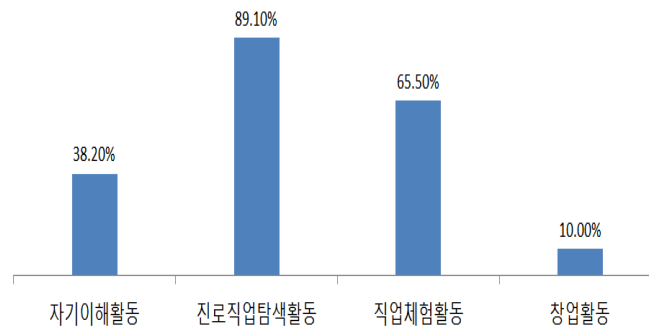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1)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분석

✓ 진로활동 참여실태

- 남<여, 학업성적 상=중>하,
- 지역(예산, 금산, 아산>논산, 천안>서천, 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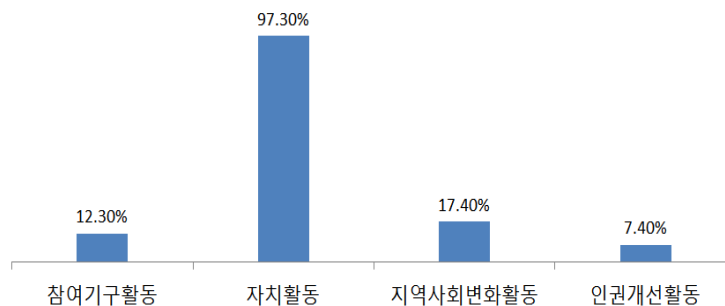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1)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분석

✓ 참여활동 참여실태

- 남<여, 중학교>고등학교, 학업성적 상=중>하,
- 지역(계룡, 서천, 예산>금산, 천안>보령, 서산, 태안)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1)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분석

- ✓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
 -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참여
 -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많이 참여
 - 학업성취수준이 중 이상일 수록 더 많이 참여
 - 지역별 참여
 - 많이 참여: 계룡, 예산
 - 보통 참여: 논산, 금산, 천안
 - 적게 참여: 서산, 보령, 태안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2) 청소년 활동 참여요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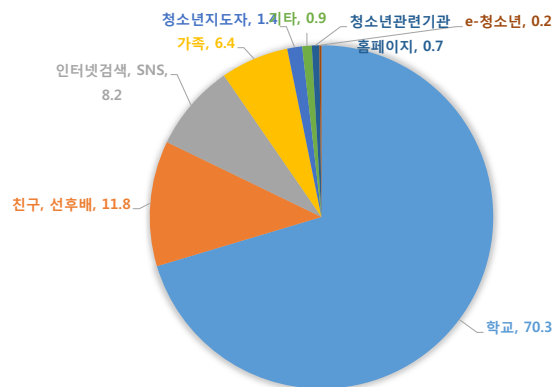
순위	세부활동	빈도	%	순위	세부활동	빈도	%
1	스포츠활동	1,165	21.1%	18	생명과학활동	323	5.9%
2	야영활동	1,060	19.2%	19	일손돕기활동	322	5.8%
3	직업체험활동	886	16.1%	20	창업활동	289	5.2%
4	해양수산활동	827	15.0%	21	야영활동	278	5.0%
5	예술체험활동	812	14.7%	21	남북교류활동	271	4.9%
6	진로직업탐색활동	614	11.1%	23	자치활동	267	4.8%
7	신체건강관리활동	549	10.0%	24	해양과학활동	259	4.7%
8	재능나눔활동	456	8.3%	25	정보통신활동	259	4.7%
9	성교육활동	446	8.1%	26	환경보호활동	219	4.0%
10	자기이해활동	429	7.8%	27	생활안전활동	196	3.6%
11	도전활동	416	7.5%	28	도전활동	200	3.6%
12	해양수산활동	409	7.4%	29	환경생태탐사활동	187	3.4%
13	우주과학활동	393	7.1%	30	중독예방활동	177	3.2%
14	기술공학활동	375	6.8%	31	지역간교류활동	147	2.7%
15	국제봉사활동	375	6.8%	31	참여기구활동	142	2.6%
15	정신건강활동	342	6.2%	33	인권개선활동	131	2.4%
17	국제교류활동	343	6.2%	34	지역사회변화활동	106	1.9%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3) 청소년 활동 결정요인

- ✓ 정보획득 경로, 참여 동기, 참여에 영향을 미친 사람, 참여 결정요인, 참여 장애요인, 참여가 도움이 된 점, 희망활동장소, 희망활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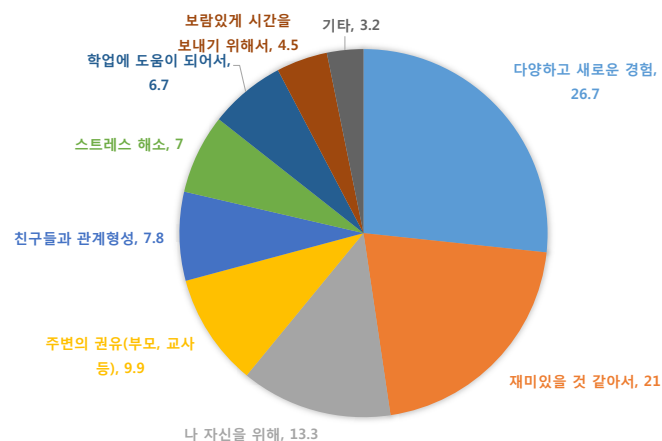
정보획득 경로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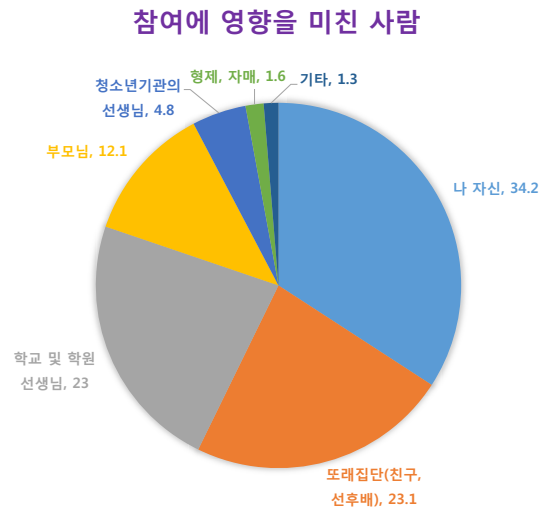
3) 청소년 활동 결정요인

참여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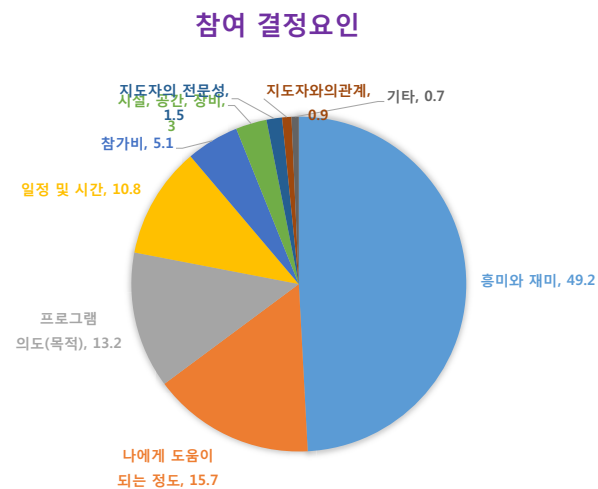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3) 청소년 활동 결정요인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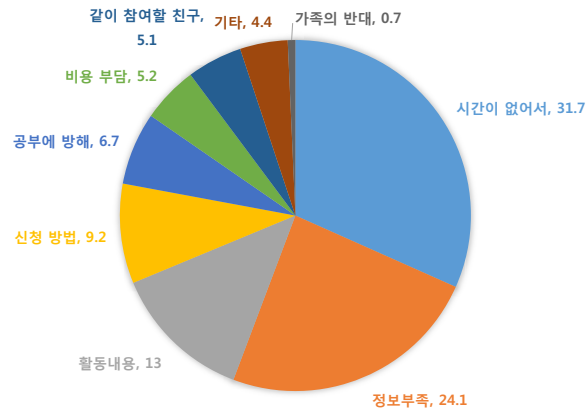
3) 청소년 활동 결정요인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3) 청소년 활동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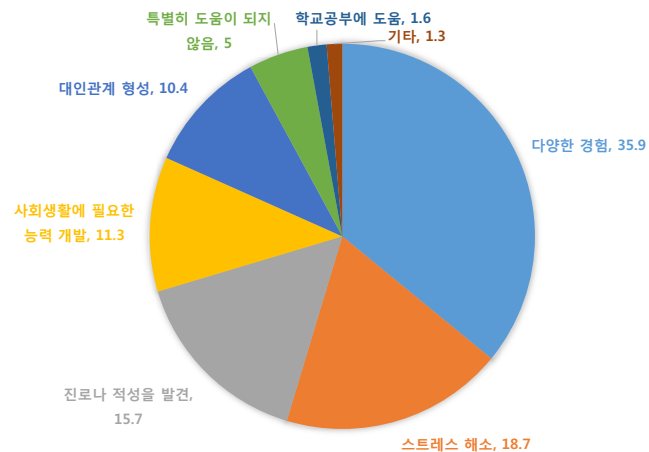
참여 장애요인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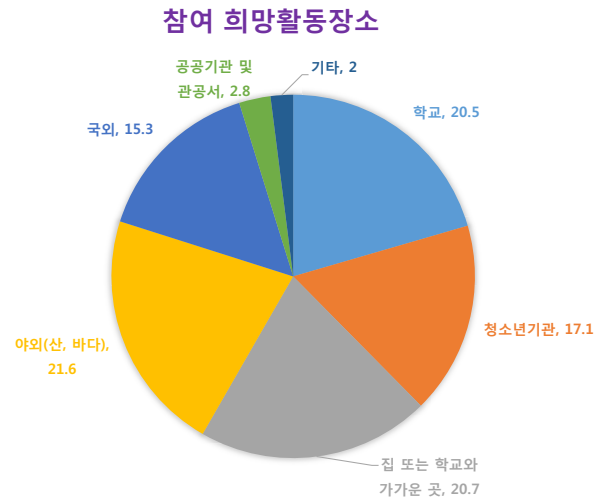
3) 청소년 활동 결정요인

참여가 도움이 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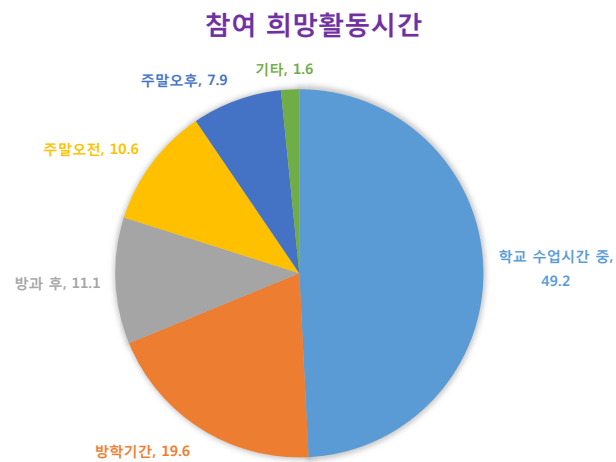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3) 청소년 활동 결정요인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3) 청소년 활동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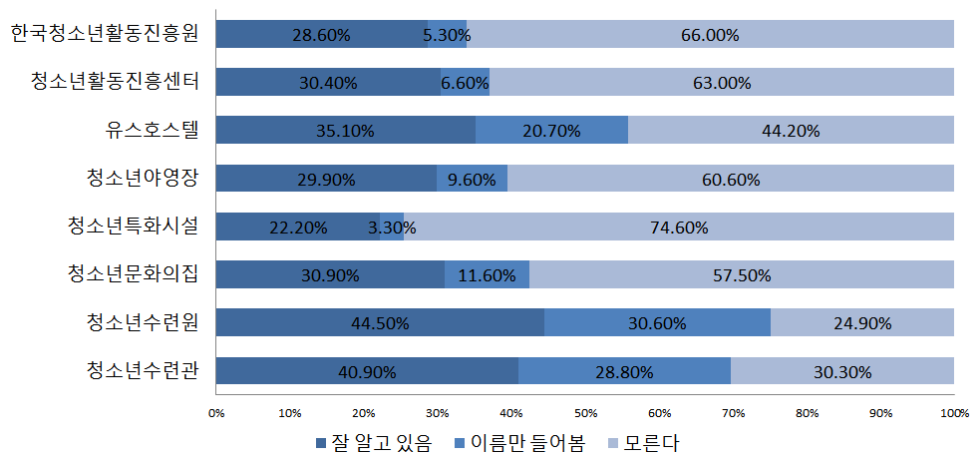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4) 청소년 활동 사업 인지여부

구분	N	비율	구분	N	비율
e-청소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557	25.1%	기타	178	8.0%
청소년운영위원회	537	24.2%	청소년국제교류사업	177	8.0%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Dovol/두볼)	531	24.0%	세계청소년자원봉사의날(GYSD)	172	7.8%
청소년참여위원회	382	17.2%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156	7.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64	16.4%	청소년특별회의	156	7.0%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지원사업	335	15.1%	청소년증발급사업	151	6.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249	11.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자기도전포상제)	99	4.5%
청소년희망센터	244	11.0%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97	4.4%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31	10.4%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 상상학교	9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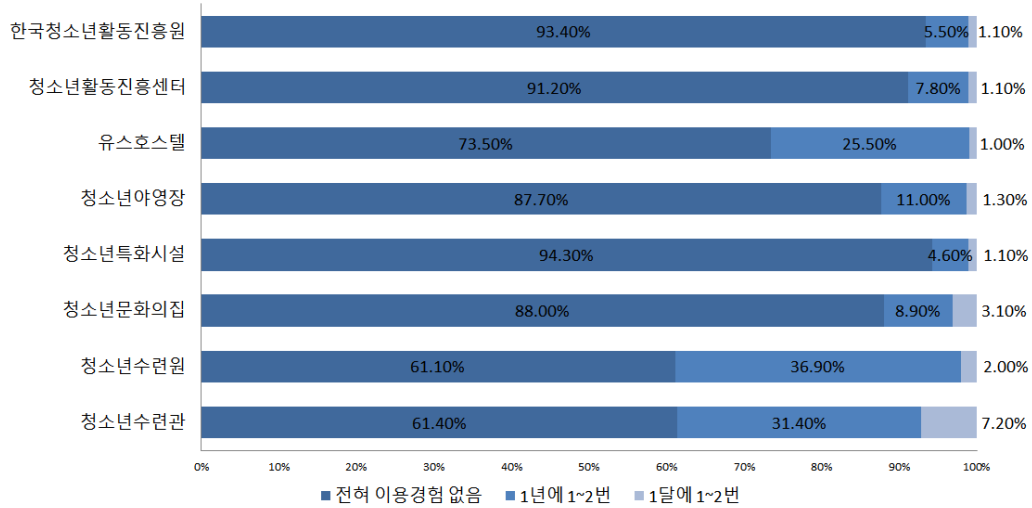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5) 청소년 활동 시설인지여부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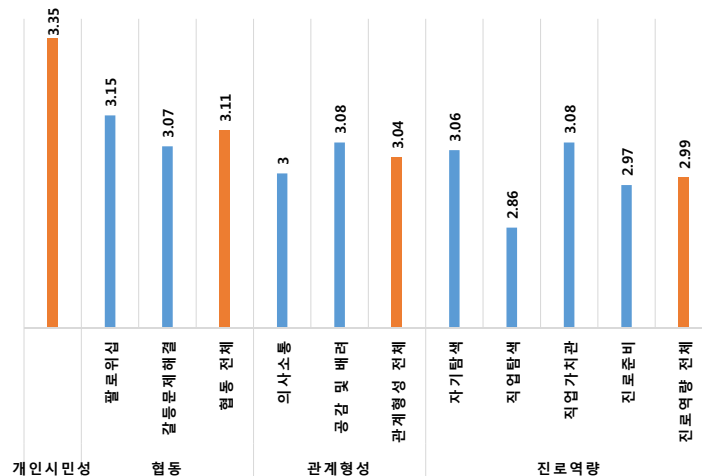
6) 청소년 활동 시설 이용경험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7)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영향

✓ 충청남도 청소년 역량 지수 측정결과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7)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활동경험 유무와 청소년 역량과의 상관관계

	개인시민성	협동	관계형성	진로설계
건강증진활동경험	.018	.063**	.060**	.081***
과학정보활동경험	.076***	.103***	.086***	.140***
교류활동경험	.056**	.085***	.082***	.071***
모험탐사활동경험	.020	.078***	.092***	.114***
문화예술활동경험	.114***	.196***	.130***	.129***
자원봉사활동경험	.101***	.130***	.093***	.094***
진로활동경험	.100***	.128***	.090***	.099***
참여활동경험	.100***	.145***	.103***	.096***

*p<.05, **p<.01, ***p<.001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7)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활동(경험, 횟수, 만족도)이 청소년 역량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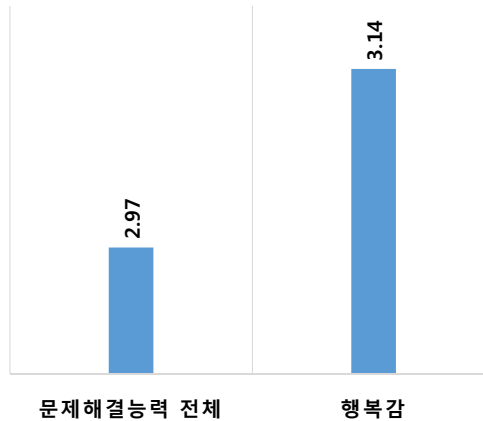
구분		$FF(\Delta F)/F$	B	β	t
개인시민성	청소년활동 경험	.002(.001) / 3.400	.138	.039	1.844
	청소년활동 참여횟수	.005(.005)/11.600**	.098	.073	3.406**
	청소년활동 만족도	.037(.036)/81.641***	.167	.192	9.036***
협동	청소년활동 경험	.001(.001)/2.992	.119	.036	1.709
	청소년활동 참여횟수	.005(.004)/10.253**	.084	.069	3.202**
	청소년활동 만족도	.083(.083)/193.689***	.232	.289	13.917***
관계형성	청소년활동 경험	.001(.001)/2.950	.108	.037	1.718
	청소년활동 참여횟수	.002(.002)/4.286*	.049	.045	2.070*
	청소년활동 만족도	.061(.060)/137.990***	.178	.246	11.747***
진로설계	청소년활동 경험	.001(.001)/2.567	.110	.034	1.602
	청소년활동 참여 횟수	.002(.001)/4.153*	.054	.044	2.038*
	청소년활동 만족도	.086(.086)/201.742***	.236	.294	14.204***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역량이 높음
- 학교급 차이 나타나지 않음
-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역량이 높음
-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8)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문제해결력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충청남도 청소년 문제해결력 및 행복감 측정결과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8)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문제해결력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활동(경험, 횟수, 만족도)이 문제해결력 및 행복감과 상관관계

	문제해결력			행복감		
	경험여부	참여횟수	만족도	경험여부	참여횟수	만족도
1. 건강증진활동	.089***	-.036	.246***	.092***	.083***	.299***
2. 과학정보활동경	.117***	-.027	.241***	.062**	-.045	.236***
3. 교류활동	.069***	-.005	.207***	.010	-.023	.215***
4. 모험탐사활동	.112***	.037	.138***	.118***	.067*	.180***
5. 자원봉사활동	.135***	-.179***	.203***	.140***	-.035	.189***
6. 문화예술활동	.098***	.094***	.244***	.093***	.025	.255***
7. 진로활동	.111***	.104***	.249***	.086***	.062*	.292***
8. 참여활동	.109***	-.029	.215***	.090***	-.009	.278***

*p<.05, **p<.01, ***p<.001

3 2016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실태, 요구, 역량 결과분석

8)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 문제해결력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활동(경험, 횟수, 만족도)이 문제해결력 및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구분		$R^2(\text{adj. } R^2)/F$	B	β	t
문제해결력	청소년활동 경험	.001(.000)/3.146	.114	.064	1.774
	청소년활동 참여횟수	.001(.000)/1.487	.030	.026	1.219
	청소년활동 만족도	.087(.086)/202.202***	.220	.294	14.220***
행복감	청소년활동 경험	.004(.004) / 9.325**	.236	.066	3.054**
	청소년활동 참여횟수	.001(.000) / 1.067	.030	.029	1.033
	청소년활동 만족도	.109(.109) /253.062***	.291	.330	15.908***

문제해결력

- 성별, 학교급 차이 나타나지 않음
-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역량이 높음
-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행복감

- 남학생이 더 행복
- 중학생이 더 행복
-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더 행복
- 지역: 공주, 예산, 금산 > 홍성, 논산, 서산

4. 제언: 충청남도 청소년 및 역량 향상 발전방안

4 제언: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및 역량 향상 발전방안

- 충청남도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촉진 방안 요구
 - 특정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스포츠, 정보통신, 진로탐색, 자치활동 등)
 - 교류활동, 창업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 참여 상대적 저조
- 청소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청소년 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필요
 - 특정 활동을 요구(스포츠활동, 야영, 직업체험 등), 교류활동, 사회참여 요구 저조
 -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요구
- 청소년 활동 참여 결정요인 촉진 및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전략적 노력 요구

4 충청남도 청소년 활동 및 역량 향상 발전방안

- 충청남도 청소년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전략 촉구
- 충청남도 지역에 따른 청소년 활동 및 역량, 그리고 행복감의 차이 해소방안 마련 요구
-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및 처우개선 필요
-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필요: 청소년 관련 기관 전문성 강화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향

한도희 사무총장(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충남 청소년 활동 정책의 방향과 과제

최창욱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활동

채충민 위원(청소년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

☞ 그래도... 청소년이 희망이다.

박영의 센터장(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현황과 활성화 방향

한 도 희 사무총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현장계신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분들이 학계나 연구소 및 관련기관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현재의 우리 정책과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마다 답답한 마음에 울컥 화가 치미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분명하게 지역의 청소년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청소년전문적인 법률(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도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련시설도 있고 국가전문자격증인 청소년도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껍데기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이러한 법과 제도, 현장의 시설과 프로그램, 전문 인력이 어울어져 제대로 돌아가기에는 무엇인가 많이 부족한 것이 바로 청소년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청소년활동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모여 서로 듣고 이야기할 수는 장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행사를 참 많이 수행지만, 결코 쉽지 않은 행사임을 참여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가 기본적으로 답답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앞으로 청소년활동이 나가야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은모 박사님께서서는 ‘2016 충남 청소년활동 실태 및 연구조사 결과’를 충남 전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청소년의 삶의 입장에서 폭넓고 다양한 각도에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충청남도내 15개 시군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실태(건강증진, 과학정보, 교류, 모험탐사, 문화예술, 자원봉사, 진로, 참여)와 참여요구(건강증진, 과학정보, 교류, 모험탐사, 문화예술, 자원봉사, 진로, 참여)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정리해 주셨고, 이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결정요인과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및 참여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활동 참여가 다양한 청소년역량(시민성, 협동, 관계형성, 진로설계)에 상관성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 주고 있으며, 나아가 문제해결능력과 근본적인 청소년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귀한 주제 발표를 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은모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활동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청소년 행복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의 기본과 거점이 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자기반성 및 개선에 대한 노력이 시작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성 박사님의 글에 더하여, 전국의 800개 수련시설과 2만 여명의 청소년지도자와 900만 명의 청소년을 섬기고 있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행복 성장 원동력, 청소년 활동정책 발전방안’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및 충남도의 청소년활동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 청소년수련활동 시설의 기본적인 종류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종류】

시 기	명 칭	참 고 사 항
1991년~1999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 생활권: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실 자연권: 청소년수련마을, 청소년수련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텔	1. 생활권수련시설: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행하는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 가. 청소년수련원: 실내 및 옥외에서 행하는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종합적인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관: 실내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수련시설 다. 청소년수련실: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소규모 수련시설 2. 자연권수련시설: 주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청소년수련마을: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관(숙박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야영시설등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종합적인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의 집: 생활관등의 시설·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는 수련시설

시 기	명 칭	참 고 사 항
		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거나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 및 제4종 유스호스텔로 구분
1999년~2004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 1. 생활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2. 자연권: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3. 유스호스텔	1.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을 통합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 2. 청소년수련마을과 청소년수련의집일 통합하여 청소년수련원으로 3.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개칭
2004년 이후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1. 청소년수련관 2. 청소년문화의집 3. 청소년수련원 4. 청소년야영장 5. 청소년특화시설 6. 유스호스텔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2. 청소년활동시설내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 3. 생활권, 자연권 영역구분 없어짐 4. 특화시설 신설(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시설의 현황】

(단위:개소)

구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공공	513	184	227	54	21	18	9
민간	274	3	6	134	21	110	0
총계	787	187	233	188	42	128	9

* 청소년백서(2015)

【충청남도 시설현황】

(단위: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87	187	233	188	42	128	9
충남	49	11	9	14	2	13	0

* 청소년백서(2015)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측면에서 몇 가지 방향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총론적 측면에서의 제안입니다.

- 청소년활동(청소년수련시설)에 필요성과 강화에 대한 전 국민적 홍보 및 교육 필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성장 이행을 위한 필수 과업이며, 학교 공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성장지원 필수불가결 사항입니다. 이에 청소년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연구 확대 및 다양한 우수사례 및 우수시설, 우수지도자에 대한 체계적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청소년활동에 대한 국가적 공적 체계화 구축

청소년활동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국가단위 초중고 9년제(초 3년(4~6학년), 중 3년, 고 3년) 활동커리큘럼 구축 및 다양한 역량개발활동 영역 범주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학교교육의 도우미가 아닌 선도적인 청소년 성장지원 제도로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청소년관련법령에 본 사항에 대한 조 문화 추진 필요합니다.

- 현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정책 채널 구축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와의 논의 채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장관(반기별 정례회의), 실·국장(분기별 정례회의), 과장(월별 정례회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글로벌 청소년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우수사업 발굴 및 현장적용을 통한 보급을 필요하며,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 청소년활동(시설운영) 관련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설유형별 측면에서의 제안입니다.

- 청소년수련관

운영형태별(지역 청소년인구수 및 특성)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질개선 필요합니다. 수련관은 주요 서비스 대상인 지역주민 및 영유아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운영구조 개선 추진(‘수익 구조’의 운영형태를 과감히 탈피, 벌어서 그 수익금

으로 청소년에게 투자 한다는 운영방법은 과감히 버려야 함)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지역내 학교와 동등한 위치에서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상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다양한 세계혜택 보장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문화의집

전국 청소년들의 보편적 이용 및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확충과 적절한 운영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을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인력과 그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의 학교단체수련활동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 가치를 추구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 상품처럼 규격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에 학교단체수련활동의 입찰제도 및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청소년활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형태의 제도로 개선 필요 합니다.

학교단체수련활동 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비를 면제에 대한 국가차원(공적자금)의 지원책 마련 필요하며, 노후된 청소년수련원 및 활동 장비 리모델링 정기적(3~5년) 지원 및 청소년수련원의 특성화·전문화 및 운영안전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공재로의 시설에 맞게 필요 전문 인력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합니다.

○ 유스호스텔

실질적 개별 여행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체성(개념, 시설, 프로그램, 인력)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향후 도심권 소규모 여행청소년 지원시설(도심 유스호스텔) 시범사업 추진 및 전국 보편적 확대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활동정책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제안입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령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현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법에 근거를 둔 법인·단체, 수련시설에 대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허가 및 임의 단체 등으로 집중하여 무분별한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에 운영상 수련시설 활성화 반영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있어서, 사전인증대상(일정규모이상 및 고위험활동)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상 행정소모를 최소화(줄임)으로 운영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평가주기 및 체제 보완하여 평가주기는 현재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등급별 평가주기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등 상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기적 국가차원의 활동욕구 조사·연구 지속적 수행과 인지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기능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 환경에 따라 각 지역의 청소년들의 활동 욕구가 다르므로 청소년들의 활동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필요하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제고 및 개선책 마련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윤지상 의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현장에 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지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충청남도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한 단계 더 행복을 위한 성장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충남 청소년 활동 정책의 방향과 과제

최 창 욱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은모 박사님께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충남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청소년들의 역량지수를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역량지수 관련 연구(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2016)에서 타 지역에 비해 충남지역 청소년들의 역량지수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은 충남지역이 청소년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이 많고, 그만큼 학계전문가가 많으며, 충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지역사회 각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의 연계협력도 잘되며, 교육청 및 충남도와의 협력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통렬한 고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한 만큼의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지 않은지,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한 축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임금이나 복지체계가 낮아 더 상황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려 하고 있지 않은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협약서 등의 실적보다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미비하지 않은지,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확률이 낮지만 충남청소년들의 성향이 타 지역에 비해 특이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충청남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6년도 조사에서 충청남도 청소년들은 건강증진활동, 진로활동, 참여활동, 문화예술활동, 자원봉사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험탐사활동, 교류활동 순의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건강증진활동은 93%의 청소년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교류활동 등은 아주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향후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은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넓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2015년도 조사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의 목적인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단체·시설 및 학교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자유학기제의 실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등 일선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로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진로활동은 자기이해활동, 진로직업탐색활동, 직업체험활동, 창업활동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충청남도 청소년들은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약 89%, 직업체험활동 약 66% 정도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진로활동의 또 다른 하위영역인 자기이해활동과 창업활동은 각각 약 38%, 약 10% 등 낮은 수준의 참여경험을 보였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과 보급, 경험터전의 연계와 확대 등이 필요하다.

진로활동 참여경험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차이도 조금 보였는데 예산, 계룡, 청양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태안, 서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간의 편차를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활동의 참여횟수도 거의 대부분이 1~2회의 단편적인 참여가 많다. 단편적인 참여는 프로그램 및 활동의 효과를 담보하기 힘들다.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덧붙여 진로활동에 대한 충남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만족도가 타 활동 만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100점 환산 점수 중에서 80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참여 희망 활동을 조사한 결과 건강증진활동이 약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험탐사활동이 약 58%, 진로활동, 문화예술활동이 각각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활동은 많은 청소년들이 수행하고 있고 요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활동들은 낮은 수행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 측면에서 모험탐사활동, 진로활동,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단기적인 강조도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세부 참여희망 활동을 조사한 결과 총 34개의 세부활동 중에서 스포츠 활동이 1위, 야영활동이 2위, 직업체험활동이 3위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활동 이외에

특이하게 진로활동의 하위영역인 직업체험활동, 진로직업탐색활동, 자기이해활동 등이 10위권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다섯째,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및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한 청소년활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다.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5.1%, 청소년운영위원회 24.2%, 청소년자원봉사포털사이트(DOVOL) 24.0%로 그나마 4명 중 1명 정도 알고 있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 상상학교 등은 5% 미만의 인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타 사업들도 낮은 수준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충청남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청소년수련원은 75.1%, 청소년수련관은 69.7%, 청소년문화의집은 42.5%, 청소년특화시설은 25.4%, 청소년야영장은 39.4%, 유스호스텔은 55.8%, 충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는 37.0%가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권 수련시설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특히 충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충남청소년진흥원)는 아마도 모든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충청남도 청소년활동의 중추인 충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충남청소년진흥원)의 인지도가 37%라는 점은 충남 청소년들의 낮은 역량지수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이지만, 인지도의 향상은 아마도 충남 청소년들의 역량지수를 높이는 첫 발자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관련기관·시설·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2016년도 본 조사에서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이용경험여부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이 38.6%, 청소년수련원 38.9%, 청소년문화의집 12.0%, 청소년야영장 12.3%, 유스호스텔이 26.5%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활동진흥센터(충남청소년진흥원)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8.8%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의 전문 기관 및 시설인 만큼 청소년들에게 수련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행복감 수준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지만 청소년활동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후 참여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참여만족도가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욱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의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많이 제공해주고, 청소년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결국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궁극적으로 높여줄 것이다.

여기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아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활동

채 충 민 위원

(청소년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도희 사무총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박사님 그리고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박영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님처럼 미래에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의 인권을 대변해주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청소년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 위원 채충민 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활동

청소년활동은 사전적 의미로 청소년들이 몸을 움직여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서 성인으로 성장하고 발달시켜 나가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청소년 지도사들이 청소년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활동,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은 개선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활동에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동아리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국제교류활동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제시된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목적보다도 기성세대의 틀에 맞춰 균형 있는 성장이 아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서 부모와 교사가 지도 교육을 해야 하는 인식 속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다?

‘여러분,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말이 잘 못 되었다는 표현으로 느껴지시나요? ‘발표자분의 표현이 잘 못 되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청소년이 미성숙하지 그럼 성숙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청소년은 항상 부모나 교사 또는 성인들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청소년지도사로서, 청소년전문가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말입니다.

중세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청소년은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순히 축소된 성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 못한 일부 모습을 보았을 때 청소년을 단순히 축소된 성인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 방향. 청소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

탈무드에서 주는 명언 중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청소년 활동정책 발전 방향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 청소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자유학기제(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일부 학부모들을 포함한 어른들에 의해서 올바르게 못하게 운영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한 시간에 사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한층 발전되는 만큼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도 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비선실세(비선 : 비공식적인, 사적인 관계, 경로 등을 의미 ; 실세 : 실제 권력,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전국 청소년 시국대회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 더 이상 ‘공부에만 집중해라, 엄마가 다른 거 준비해 줄 테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청소년들은 물고기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른들이 그것이 안쓰럽고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깝다며 물고기를 잡아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잘 못된 방법입니다.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환경들은 지금의 어른들과 다르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성세대의 틀에 청소년들을 끼워 맞추며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과거의 기성세대의 모습과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이야기는 제가 2016년도 청소년특별회의 충청남도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돌아본 저의 이야기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고 훌륭한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행복성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활동정책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정보와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말을 할까?’ 그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밑 배경에서 청소년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청소년이 희망이다.

박 영 의 센터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들어가기

대통령 탄핵,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정유라 부정입학 등의 사건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시조어로 시대상을 풍자했던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이라는 시대적 과업 앞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입시경쟁 속에서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와같은 사건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기에 충분했고, 그러한 분노와 좌절의 메시지는 한 사람 한사람의 촛불로 그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펼치기

우리의 청소년현장은 지금 어떠한가?

그간 어른들을 믿고 의지했던 ‘가만히 있으라!’는 한 문장은 세월호의 아픔 이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청소년 의지의 불씨가 되어 정치와 사회를 교과서로만 접하던 우리 아이들을 광장으로 이끌어 내고 있으며, 나아가 18세 참정권을 목청껏 외치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현장의 지도자들은 이미 좌절에 좌절을 거듭하여 무기력감에 그저 포기한 듯....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비롯하여 매일매일 쌓여가는 업무, 점점 줄어드는 청소년 예산으로 청소년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듯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공동체문화감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 프로젝트는 그동안에도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오히려 그 예산이 더욱 축소되었음에 이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논란이 되었던 우리 청소년들의 ‘지적 역량’은 OECD 36개국 중 2위, 공동체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5위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정책반영이라 하겠다. 또한 5차 청소년정책수립방향을 선제적(기본

성격), 포괄적(정책대상), 균형적(정책내용), 실질적(정책효과)으로 정했던 것과도 확실히 역행한다 하겠다. 이뿐이라...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초지자체의 한 곳만을 일년 2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의 청소년활동 시,군.구센터는 각 종 정책보고서와 사업 안내책자에만 그럴 듯한 그림으로 몇 년 째 자리하고 있다. 이에 과연 정부는 국가의 주역이라 칭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계획하고 정말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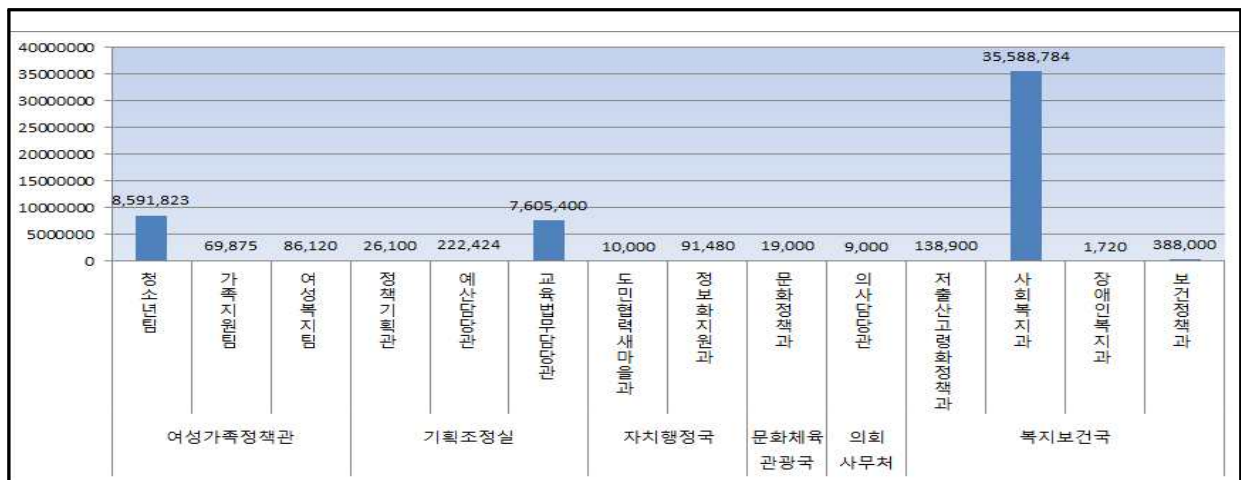
또한 청소년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보호에만 치중했던 청소년정책이 예방과 성장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여 문제대응에서 건전육성 중심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청소년문제개선 종합대책(1985~1987)에서 청소년 자질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체제를 마련하고 육성하고자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1992~2001)으로, 그 다음은 미래준비를 위한 청소년 활동 기반 및 동반자적 청소년 지위를 확보하고자 제1,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2002)을 실시하였으며 오늘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이르게 되었다. 1987년부터 1991년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다양한 청소년 관련 법(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지원 법률 등)들이 파생되며 현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세월 역시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어언 30년이 되었다.

그러나 마음 가는데 물질이 있다고 했던가... 전국 청소년 예산을 살펴보면 30년의 청소년정책 흐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분야별 청소년 예산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 88.7%,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2.8%,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2.8%,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5.5%, 청소년 정책추진 강화 0.1%으로 나타나고 있어(2014년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a) 우리는 여전히 1987년 이전의 보호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머리와 몸이 따로 간다면 과연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언젠가 되면 이 모순이 해결될 수 있을까... 차라리 1987년 이전의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면 머리와 몸이 일치되어 정책의 일치를 볼 수 있으려나... 모순된 정책을 안고 사는 우리는 또한 해를 넘기며 변화의 내년을 기다리고 있다. 좌절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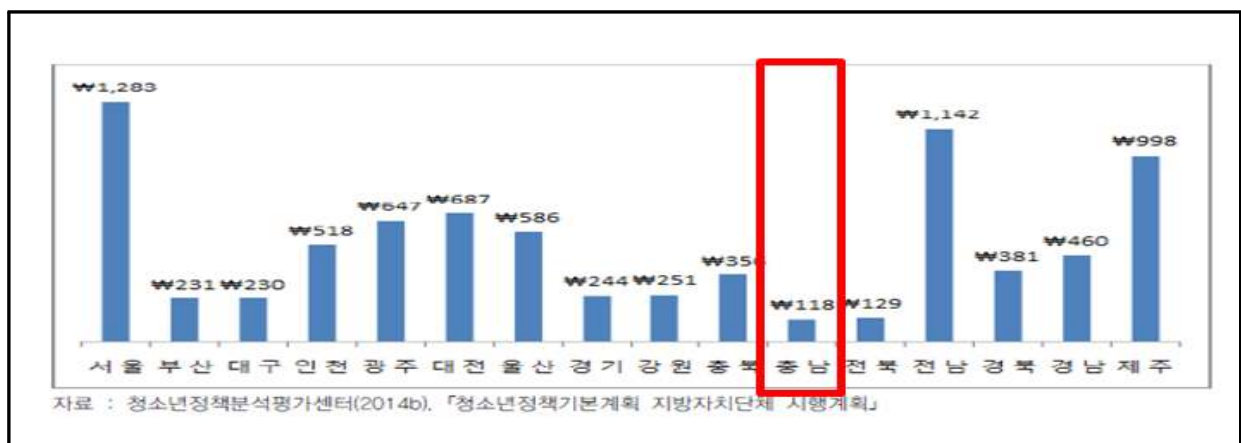
충남의 청소년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청소년 보호,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청소년 성장 육성분야에 약 2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팀 자체 예산은 충남 전체 예산 중 8,591,823천원으로 0.15%, 그 중 청소년활동분야 예산은 4,077,876천원으로 0.7% 정도에 해당한다. 전국 광역지자체 청소년 담당부서의 예산을 규모별로 비교하면 서울이 67,645,192천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세종이 1,761,154천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8,591,823천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에 해당한다. 2014년 광역 지자체 청소년 1인당 예산액을 살펴봐도 서울이 1,283천원인데 반해 충남은 118천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수련시설 법정 설치율도 전국 12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심지어 계룡, 청양의 경우는 아예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

(2016.3.7 충남도청 청소년팀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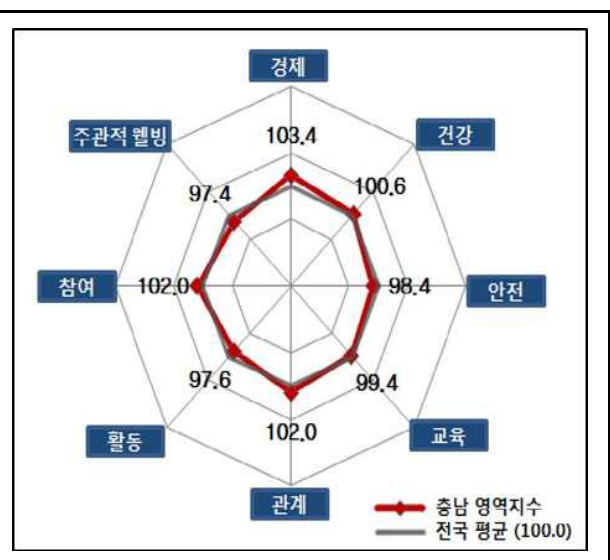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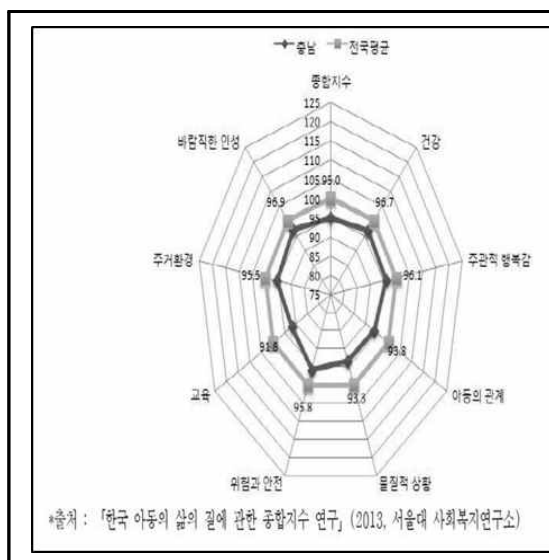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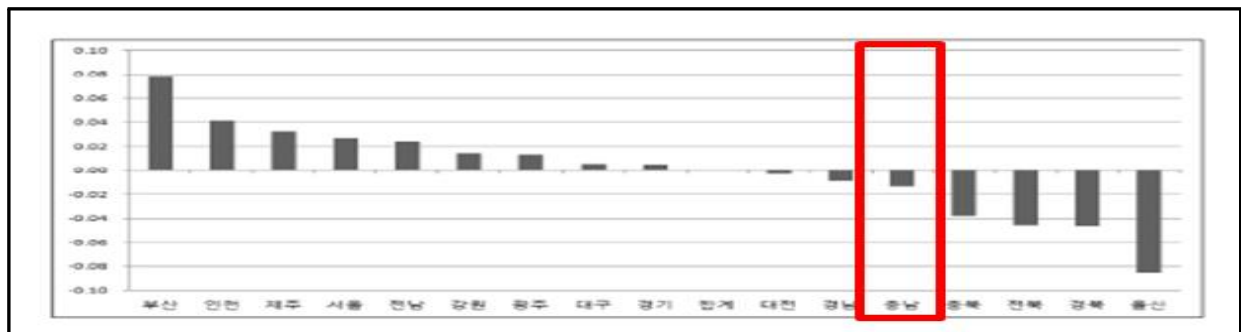


(2014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예산현황 비교)



이러한 열악한 지지기반은 충남 청소년들의 행복도와 역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2013년 전국 광역별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결과에서 전국 1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에 의하면, 충남의 아동행복지수는 모든 영역(바람직한 인성, 건강, 주관적 행복감,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에서 타 시·도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종합지수 연구결과』에서는 안전영역과 교육영역, 활동영역과 주관적 웰빙영역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2016년 연구에서도 청소년 역량비교 전국 14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결과)



2015년 『충남 청소년 공동체 의식조사』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행복감, 가정생활 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지역사회 친밀도, 공동체 의식 모두가 가정의 경제수준과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청소년체험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다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충남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역량, 행복도 조사』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청소년활동 참여가 다양한 청소년역량(시민성, 협동, 관계형성, 진로설계)과 문제해결 능력, 행복도와 상관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반면 청소년 활동참여율은 정치적, 정책참여활동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투표권이 없는 정치참여의 소외세대라는 점, 정책 참여 기회가 매우 제한적(충남청소년참여위원회 15명으로 기초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음)이라는 현실의 구조적 문제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가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다. 지나온 5년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현재 당면해있는 여건들(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계층 간의 격차)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도센터로서 청소년활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5가지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4년 6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5년 5월 시행되면서 현재 전국에는 약 200여개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보호적 개념의 기존 사회문화와 함께 지자체 평가에 설치의 유무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성과라 사료된다. 청소년시설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출발점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수련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았으나 시행되어지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신뢰와 애착을 만들어가는 단계로써 자신과 마음이 소통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현장의 지도자는 열악한 처우와 계약해지 등의 고용불안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일부 지자체

체에서는 1년 근무를 보장하지 않고 11개월 근무로 계약)이다. 이러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청소년 육성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모순이라 사료된다. 이는 지도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불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소년 역량증진에 대한 예산의 투입이다.

현재 청소년 분야의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청소년들을 미래의 주역이라고 외쳐댄다. 정성을 들이지 않은 나무가 어찌되는가... 이대로라면 우리는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녹음기와 같은 생명력을 잃은 기계적 삶을 살아갈 것이며, 우리의 미래는 물을 주지 않는 장미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특히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역량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하다. 관계역량, 학습역량, 관리역량 사회참여역량, 진로개발 역량 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6년에 기초 지자체까지 전면 시행된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청소년 리더양성 프로젝트(주.인.공),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및 2017년에 추진될 청소년정책사업 예산 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매우 고무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청소년 정책전달 체계의 확립이다.

현재 중앙정부-지방정부(광역 지자체)-지역정부(기초 지자체)로 이어지는 정책전달의 체계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방정부까지만 설치가 되어있다. 시군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가 설치되어 일사불란하게 청소년상담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역마다 수련관, 문화의 집 등이 그러한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는 있지만 명확히 역할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보니 이웃집 정에 얹매어 잠시 일을 돌봐주는 정도로 정책전달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의 설치 혹은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청소년활동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역시 시도센터에 역할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없어 시도센터와 사업협력자 정도로 인식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다섯째, 청소년 관련부서의 안정화이다.

현재 청소년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지자체 부서에 분포되어 있는 바, 그 정체성을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적은 예산에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 한 명의 인력으로 청소년, 아동, 노인, 가족 분야를 총 망라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현실, 주말에 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지자체에서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담당자가 바뀌는 일들이 다반사이므로 청소년 소관부서를 정확히 명시하고,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도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청소년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사업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토론주제인 ‘2016 충남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및 청소년 역량, 행복도 결과’는 그간의 모든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듯이 청소년활동의 기반확대를 통한 청소년건전육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이다. 따라서 잇단 연구 결과에 따른 제언사항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조사 결과를 의정토론회로 이어주신 윤지상 의원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 올리며, 향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충남의 정책들이 본 토론회를 기반으로 활짝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비록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그래도 청소년이 희망이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worksheet designed for handwriting practice. It features 20 evenly spaced, horizontal dashed lines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The background is plain white, and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